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별 2길 6번지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음 4월 3일) 제205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24일 개막

# 현재를 즐기며 미래의 문 활짝

### 24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서

여성가족부·전라북도·군산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5월 24일부터 26일 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군산 소재)에서 개최한다.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박람회는 '청소년 정책 주장대회', '청소년 모의 선거' 등 청소년 주도로 열리는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개최지 군산의 일반시민, 대학생 등 7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박람회 성공을 견인한다.

### 정책 주장·모의 선거 등 청소년 주도 프로그램 강화 박람회는 26일까지

개막식은 첫 날 24일 오후 2시 청소년과 지도자, 학부모, 청소년 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올해 박람회는 특별히 군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발된 청소년 4명이 개 폐막식 사회자로 무대에 오른다.

그동안 청소년육성 및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와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시상 이뤄진다.

가출 및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보호 자립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온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김선옥 대표,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다양화에 기여해 온 인천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홍현용 관장이 국민훈장(2명)을 받는다.

이외에도 표창(4명), 대통령 표

창(6명·2단체), 국무총리 표창(15명·1단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청소년 36명·일반인 30명·공무원 29명·단체 3개)이 수여된다.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미래 핵심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장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청소년들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체험의 장이 되도록 했다.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나 정부 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직접 들려줄 수 있는 '청소년 정책 주장대회'와 '청소년 모의선거' 등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청소년 도전 골든벨', '청소년 동아리경진대회', '청년푸드트럭'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매일 진행되는 멘토특강 프로그램에는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 홍병희 서울대 화학과 교수, 스피드스케이팅 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가 연사로서 청소년들을 만난다.

2018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청소년은 물론 국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단체관람을 희망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등 단체는 박람회 홈페이지(http://www.koreayouthexpo.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개막 당일 박람회장을 찾아 청소년들과 체험활동을 함께할 예정이다.

정현백 장관은 "2023세계잡버리 개최를 앞둔 새만금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축제가 열리게 돼, 준비에 더욱 탄력이 붙고 앞으로 국내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6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전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은 센터직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 금융소외계층에게 희소식... 전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 개소

###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전북신보와 위수탁 협약 통해 3년간 운영 채무조정·재무상담 등 지원, 찾아가는 복지센터로 편의 증대

전북도가 금융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 및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서민금융복지서비스 지원에 앞장선다.

전북도는 16일,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서민금융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전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형 서민금융복지센터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2020년까지 3년동안 운영된다.

센터는 금융상담 채널 부족,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전북도내 서민금융 관련 센터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별 주1회 '찾아가는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운영, 전북 도민들 곁으로 다가간다.

앞으로 채무조정(파산 면책 개인회생) 지원과 채무면제까지 전담 관리하고 일자리지원 자활센터 등 지자체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주민센터, 복지기관 등 지자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잠재적 채무자, 다중채무자 등 사각지대 수요층 발굴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지자체 복지프로그램 연계로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가 급진적으로 합류하는 서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 경제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남원 유곡·두락리 고분군, 세계유산등재 대상 선정

### 호남 가야유산 중 유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위원장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南原 西谷里와 斗洛里 古墳群)을 호남지역 유일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는 기존의 3개 가야고분군(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은 유산을 추가하여 완전성을 확보하라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위원장 김원)의 권유를 받아들여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유산 범위 확대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비롯한 4개 고분군(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추가 선정했다.

지난 3월 사적으로 지정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발굴과 정비에 미비한 점이 많으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모두가 탁월한 학술적인 평가를 인정해 후보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수 십년 동안 호남 가야사를 연구해 온 호남고고학회(회장 광장근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장)와

보존 관리에 힘을 기울여온 남원시, 지역주민들의 남다른 노력의 결실이다.

강북대 남원시장 권한대행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단과 적극 협력하는 한편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대, 보강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5~6세기 경 남원 운봉고원에 존재했던 가야와 백제, 그 주변세력과의 역학관계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